

코스피	코스닥
2277.99	796.10
(-32.56)	(-21.02)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4.085	1350.50
(-0.004)	(-0.40)

김포, 서울시로 편입
“시민이 원해”
與 총선용 해석 경계
04



삼성전자, 영업이익 264% 급증 반도체 적자, MX·DP가 방어

〈모바일경험〉 〈디스플레이〉

3분기 매출 67.4조 영업이익 2.4조
반도체·DS부문 여전히 적자 늘
MX사업 매출 30조... 실적 견인
디스플레이 사업, 영업이익 1.9조



삼성전자 사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본격화했다. 반도체가 저조했던 대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선전했다. 연말부터는 더 큰폭으로 회복을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7조4000억 원에 영업이익이 2조4300억 원 실적을 31일 확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3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21%, 영업이익은 77.57% 낮은 숫자로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33%, 영업이익은 264.04%나 급증하며 ‘바다’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반도체 대신 MX·디스플레이 선전 기대됐던 반도체, DS부문 실적은 큰 반등을 확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적자를 피하지는 못했다. 매출 16조 4400억 원에 영업손실이 3조7500억 원이었다. 적자폭이 전분기(4조3600억 원)대비 6000억 원 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모두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았다. 메모리 매출은 10조5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31% 떨어졌지만 전분기보다는 17% 늘었다. 고부가 제품 확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폭도 줄었다. DS부문에서 비중은 64%로, 전년 동기(66%) 대비 소폭 줄었다.

여전한 반도체 부진 속에서 모바일, MX사업부가 선전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매출이 30조원으로 전체 매출 중 절반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3조 3000억 원으로 DS부문 적자를 거의 메우는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전분기보다도 각각 17%, 8.5% 개선했다. 전 제품군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고, 플래그십 비중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디스플레이 사업, SDC는 기대를 넘는 수익을 거두며 실적 개선에 큰 힘을 더했다. 매출액이 8조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줄었지만,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영업이익은 예년 수준인 1조9400억 원을 되찾았다.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출시와 대형 패널에서 원가 개선 등 효과다.

하만도 의미있는 실적을 냈다. 역대 분기 최대인 매출 3조8000억 원에 영업이익 4500억 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5%, 45% 늘었다. 전장 수주 확대 영향이 컸다.

TV와 가전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방했다. VD 및 가전 사업이 매출 13조7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 낮았지만, 영업이익이 3800억 원으로 52%나 늘며 큰폭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 대신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5%,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글로벌 TV 수요 감소와 함께 생활가전 성수기 효과 감소가 이유로 지목됐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출 23조 줄여 재원 확보 약자보호·성장동력에 투입”

尹 ‘2024 예산안 시정연설’
건전재정 운영 기초 재확인
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초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1대 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35만원 인상,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 6조5000억 원 확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4조4000억 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고용·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원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과 회계공시를 수용한 야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안갯속

EU에 시정조치안 제출 일정 연기 요청

아시아나 화물 매각 결론 못내
이달 초 이사회 재소집 예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에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온 유럽연합(EU) 집행위(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다. 대한항공은 당초 10월 중 시정조치안을 EC측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문제가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의 EU 집행위 제출도 어렵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됐다. 31일 항공업계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9시 30분쯤 정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속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11월 초 이사회를 재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일부 사외이사가 배임, 노동조합 반발 등을 우려해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사내이사 2인 중 한 명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해 출석하지 않았다. 진 이사는 안전에 반대 혹은 기권을 투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사회에는 원유석 아시아나 대표(사내이사)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부산 업계 ‘들썩’
▲ 박진, 이집트 외교장관 통화... 이·팔 분쟁에 우리 국민 안전 당부 /사진 뉴시스

▲ 국회, 정치개혁·연금특위 6개월 연장... 내년 4월까지 활동
▲ 병무청, 병역판정 정확성 높인다... 최신 의료장비 확보



▲ 경찰위성 3차 발사 10월 시한 넘긴 북... 기술 결합 해결 중
▲ 통일부 “북, 제재로 외화벌이 차질... 공관 유지 어려워” /사진 뉴시스